

항일대전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 겨울명월구회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력사적인 회의

최 수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주체20(1931)년 겨울명월구회이는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여 항일전쟁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우리 인민을 항일대전에로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1년의 겨울명월구회이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다.》
(《김일성전집》 제96권 252페이지)

항일대전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 겨울명월구회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집하시고 조직지도하신 력사적인 회의이다.

겨울명월구회이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의 만주침공으로 하여 구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하시고 카룬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전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주도세밀한 준비를 갖추신데 기초하여 소집하신 회의이다.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끝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일제는 만주침공을 계기로 《후방의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인민에 대한 반동공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특히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서 인민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이 급격히 양양되었으며 그것은 점차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

동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무장투쟁의 민음직한 핵심적골간이 꾸려지고 정치군사활동의 경험도 축적되었으며 대중적지반이 닦아지고 군사활동의 중심지대도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31년 일제의 만주침공으로 하여 구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지체없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고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전면적으로 구체화하는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만과 국내의 여러 지역에 나가시여 전반적지역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무르익히시고 완성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가 만주침략전쟁을 일으킨지 3일째 되는 날인 주체20(1931)년 9월 21일 돈화에서 당 및 공청지도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하여 구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는것이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무장대오결성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돈화회의후 안도로 오시여 주체20(1931)년 9월 하순 송강

에서 안도지구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항일무장투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동만 각 현의 혁명조직들은 추수투쟁을 통하여 무장대오의 핵심골간을 육성하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였으며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내의 당 및 혁명조직들을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주체 20(1931)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종성군에 진출하시였으며 광명촌에서 국내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국내혁명조직들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후 동만의 여러 지역에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당 및 공청조직들과 반군사조직들을 정비보강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키는 사업을 비롯하여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돈화와 송강, 광명촌 회의들에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오신 과정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며 무장투쟁의 주요전략과 전술을 구상하고 정립하시면서 그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증하여오신 역사적인 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 20(1931)년 11월 상순 당 및 공청지도간부들과 함께 연길현 명월구로 오시여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전반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로선문제를 구상하고 전략전술을 규정하는데 온갖 정열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무장투쟁의

형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색에 많은 시간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장투쟁의 형식규정에 있어서도 교조를 버리고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시면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여 마침내 유격전의 형식이 식민지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무장투쟁형식이라는것을 확정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제기되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전술, 식민지민족 해방전쟁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창조적활동은 안온한 서재나 연구실에서가 아니라 일제의 악랄한 파쑈적탄압이 강화되고 적들의 감시가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삼엄한 환경에서 그리고 조선혁명군과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나날속에서 진행되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에 대하여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발행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는 《중형 무쌍한 김일성의 활동》이라는 제목밑에 다음과 같이 써여져있다.

《19세 소년의 몸으로 일찍 복잡다단한 만주사회에서 동지들의 기대와 민중의 총애를 일신에 모으고 남북으로 치주(주—뛰어다닌다는 뜻)하여 청년운동과 반제투쟁에 정열을 경주하던 김성주—김일성(일명 한별)의 그후는 어찌 되었던가?

광막한 료하평원(오가자)에서 원기를 기르고 억센 송화강(할빈)의 파랑(주—거센 물결이라는 뜻)으로 몸을 닦은 그는…무송의 산악지대로 돌아갔다는것은 기술(주—이미 켜다는 뜻)한바이어니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김일성은 오래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동천에 높이 솟은 새별과도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근본적타도와 동방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선명히 하고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9.18사변후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로선문제를 구상하고 전략전술을 규정하신데 대하여 중국신문《인민일보》1950년 7월 19일부는 《김장군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은 반드시 항일무장투쟁단계에로 넘어가야 하며 이 무장투쟁의 특징은 바로 유격전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강한 당과 광범한 항일민족통일전선, 무장투쟁을 서로 밀접히 결합시켜나가기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견고한 근거지를 건설하여 승리의 기본조건들을 마련하시였다.

강도일본제국주의자들이 동북을 침공하던 초기에 동북의 통치군벌들과 토호들은 대부분이 침략자들에게 굴복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인민들은 일떠서서 일본 침략자들에게 반항해나섰다.

조선인민이 각 지방에서 자주 추수폭동을 진행함으로써 혁명의 기세는 세차게 끓어올랐다.

항일혁명투쟁기세가 고조되던 시기에 김일성장군은 곧 끓어오르는 인민의 반일의식과 고조되어가는 혁명의 력량을 결합하여 인민들의 조직을 확대하시면서 직접 항일무장투쟁을 조직하시였다.》라고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가들이 만주땅에서 혁명군을 창건하고 항일전쟁을 개시하게 되는것만큼 중국혁명가들과의 협력문제해결에도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당시 무장투쟁문제는 만주지방의 중국혁명가들속에서도 일정에 오르고있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로동홍군은 9.18사변후 군중을 조직화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며 무장으로써 일제에게 타격을 가하자고 호소하였다.

조중혁명가들앞에는 반일공동전선을 맺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제기되였다.

그러나 당시 만주성당 서기 라등현과 성

당군사위원회 서기 양림은 9.18사변후 심양을 떠나 행처를 감추었고 양정우는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었다.

1931년 11월 동만특위서기로 임명된 동장영도 일본군대의 《토벌》에 죽을번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룡정시가지에 들어와 있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아직 간도실정을 잘 모르는 그는 동만특위가 이동된것도 모르고 그 행방을 수소문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밀정들에게 걸려들어 룡정경찰서에 체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동장영을 구원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시고 고보배라는 사람을 파견하여 탈옥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고보배가 감방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어떻게나 구슬려놓았던지 동장영은 그후 구류장에서 인차 풀려나와 명월구회의에 참가할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명월구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9.18사변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전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주도세밀한 준비에 기초하여 소집하신 력사적인 회의였다.

겨울명월구회의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군사전략사상을 제시하시고 장엄한 항일대전을 선포하신 력사적인 회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래동안 벌려온 무장투쟁준비사업을 총화하고 무장투쟁의 구체적인 방도와 전략전술적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연길현 명월구에서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를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앞서 예비회의를 진행하시였다.

예비회의에서는 앞으로 소집할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전면적으로 밝히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서 접수하고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예비회의에서는 본회의를 앞두고 그 결정관철을 위한 준비사업을 미리부터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각 지방 혁명조직들의 과업들도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본회의안전과 날자, 장소, 회의참가자, 회의순서 그리고 회의소집과 관련한 통신조직과 비밀보장문제 등 본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0(1931)년 12월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는 10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차광수, 리광, 채수향, 김일환, 량성룡, 오빈, 오중화, 오중성, 구봉운, 김철, 김중권, 리청산, 김일룡, 김정룡, 한일광, 김해산동지를 비롯하여 40여명의 당 및 공청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확정해야 할 전략전술적원칙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장투쟁을 하되 어떤 형식의 무장투쟁을 할것인가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무장조직의 형식과 근거지의 형태문제 등 일련의 다른 문제들의 해결방도가 결정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아직 그

누구도 내놓지 못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기본형식으로서의 유격전에 관한 독창적인 군사전략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이 사상의 본질은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독립투쟁은 반드시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진행되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전개되어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이다.

지난 시기 유격전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의 전투형식으로 적용되었지만 군사가들과 사람들은 오래동안 대부대전, 정규전을 절대시하면서 유격전을 홀시하는 견해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레닌은 유격전을 대중운동이 이미 실제로 폭동에 이르렀을 때 또는 국내전쟁에서 대전투와 대전투사이에 얼마간 중간기가 닥쳐오고있을 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규정하였다.

남들이 유격전을 정규전의 보조수단으로 보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것을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신것은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선혁명가들의 실정에 전적으로 맞는 과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결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처음에는 지방마다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하고 그를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다가 점차 그것을 대부대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고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도 밝혀주시였으며 근거지문제에서는 군중토대가 좋고 물질적보장조건도 좋으며 지형이 유리한 간도의 산간지대들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 참가한 당 및 공청간부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간직하고 혁명운동앞에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혁명가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월구회의에서 제

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은 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긍지를 가지게 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전략적방침과 방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야말 일념으로 충만되었다.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던 모든 참가자들은 회의를 끝마치면서 서로 팔을 끼고 《혁명가》와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다.

회의에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으로 이행시키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밑에 총대로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겨울명월구회의는 유격전의 형식과 유격대의 조직, 유격근거지의 창설 등 유격전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천명함으로써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에게 민족해방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투쟁

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겨울명월구회의에는 동장영을 비롯한 중국의 혁명가들도 여러명 참가하였다.

동장영은 동만에서 오래동안 투쟁해왔고 경험도 많이 축적한 조선동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여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동장영을 비롯한 중국혁명가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유격전쟁의 형식문제, 유격대조직문제, 유격근거지창설문제 등에서 수령님과 의견을 같이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주체20(1931)년 겨울명월구회의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혁명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의의깊은 회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할것이다.